

## ■ 2016 문학공감 스토리텔링공모전 1차 주제 심사 총평

- 사업유형 : 2016 문학공감 스토리텔링공모전
- 심사기간 : 2016. 8.24.(수) ~ 9. 4.(일)
- 심사방법 : 자택심사(서면심사)
- 심의위원(가나다순) : 문부일, 정세랑, 정용준, 조수경, 조우리

### 1. 심사 대상 작품 및 심의과정

2016 문학공감 스토리텔링공모전 1차주제 심사는 공모전기간동안 응모된 작품 87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심의위원 개인별로 자택심사를 통해 심사하였고 평가 결과인 채점표를 취합하여 총점 상위순으로 입선작을 선정하였다. 당초 20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20위에 동점으로 세 작품이 나와 이를 모두 선정함으로써 총 22개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하였다.

### 2. 심사 총평

‘문학공감 스토리텔링 공모전’ 응모 작품 대부분이 흥미로웠다. 다만,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을 ‘구전설화모음집’에 게재된 이야기와 비슷하게 풀어낸 작품, 역사책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언급한 응모작은 소재가 익숙하고 주제가 흐릿해 시선을 끌지 못했다. 효자, 장군을 단순하게 소개한 작품이 많았다. 설화나 인물의 삶을 우리 시대와 접목시키려고 고민한 작품, 응모자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시킨 작품을 더 집중해 읽게 되었다.

어느 시대가 배경이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관계성을 고려하여 선별했다. 숨어 있던 이야기들이 발굴되는 멋진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동네 이야기’가 빛나는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로 완성되었다. 이 독특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이 잊히지 않고 멀리, 오래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좋은 작품을 응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심사위원 일동